

아직도 읽지 못한 한권의 책

외로운 시절, 삶의 버팀목이 됐던 어머니의 선물

김홍희 | 사진가

내 일 아침이면 동경으로 유학을 간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께서 예쁘게 포장한 작은 선물상자가 하나 놓여 있다. 나는 선물 포장을 뜯어보지 않아도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잘 알고 있다. 《성경》이다.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시다. 유학 가는 큰아들에게 어머니가 주실 수 있는 것은 작은 《성경》 한권뿐이었다. 그리고 가난한 살림에 어디서 구하셨는지 순모 담요 한장을 건네주셨다. 아들이 택한 고난의 길을 응원하시는 어머니의 유일한 사랑의 표시였다.

다음날 아침 부모님과 친지,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며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다. 포부로 설레이기만 하던 출발이었다. 사실 말이 유학이지 무전여행이나 같은 유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담함의 연속이었다. 각오를 안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착하자마자 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헤매야만 했다. 그리고 겨우 다다미 너장 반의 자취방을 마련했을 때야 비로소 어머니께서 주신 《성경》을 책상 위에 모셔 둘 수 있었다. 16년 전의 일이다.

일본말을 할 수 없던 유학 초기에는 '야끼니꾸야'라는 일본식 불고기 집에서 석쇠를 닦는 단순노동을 했다.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알아들을 때쯤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들이 원하는 식기나 컵, 그리고 요리실에서 장만한 음식을 꺼내 주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초저녁에 식기 세척대 앞에 서면 전철이 끝나기 전까지 내내 서서 기름때 낀 석쇠를 닦아야 하는 것보다 편할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나를 풀리는 것을 하루 일과로 삼는 웨이트리스 한명이 있었다. 그 여자는 내게 필요치도 않은 주문을 하곤 했다. 접시의 종류가 어찌 그리 많고 컵의 이름 또한 어찌 그리 많던지! 내가 제 이름에 맞는 접시나 컵을 건네주지 못하면 기다

렸다는 듯이 "김상은 바보니까 접시도 하나 제대로 챙겨 주지 못한다"며 면박을 주는 것이었다. 그런 와중에 일본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일본생활에도 익숙해지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그 웨이트리스의 놀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날 나는 그녀가 뜨거운 국물이 담긴 요리그릇을 채 받기도 전에 그릇을 놓아 버렸다. 식당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스테인리스 그릇의 요란한 소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녀의 치맛자락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흩뿌려진 붉은 양념들은 가관이었다. 사정이야 어쨌든 손님들의 시선은 난리가 난 듯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 사태를 수습하러 달려온 점장의 얼굴은 설렁탕 그릇의 양념처럼 붉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녀는 기회만 오면 나를 풀리며 들었다. 결국 그 일본식 불고기 집의 아르바이트는 내가 먼저 그만 두게 됐다.

일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그날 밤, 비로소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주셨던 《성경》이 눈에 들어왔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성경》이었다. 언제나 책상 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동안 한번도 여기 《성경》이 있구나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성경》을 만지작거리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잠자리에 들었다.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데 타이완에서 온 '료'라는 친구가 멋진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다가왔다. 키가 멀대같이 크고 사람 좋게만 생긴 '료'는 하루 한두 시간 투자해 만엔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테니 한번 해 보겠느냐는 것이었다. 하루 한두 시간 투자해 만엔이라니!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이 이러했으리라. 두말 않고 '료'를 따라나선 곳이 다름 아닌 슬롯 머신 가게였다. '료'는 여러 가지 기계를 보여 주더니 그 중 결합이 있는 기계 하나를 가르쳐 줬다. 그 기계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자체의 결합 때문에 약간의 요령만 익히면 금방 많은 양의 구슬을 따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노련한 짜짜프로(슬롯 머신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였다. 친구의 성실한 가르침(?) 덕에 나는 약 삼사개월 동안 슬롯 머신을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있던 결합있던 슬롯 머신 기계는 새로운 기계로 대체되고 말았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친구와 나는 실적을 하고 말았다. 그 후 '료'는 타일공으로 나는 사우나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옮겼다.

랭귀지 코스에서 일본말을 익히던 초기 유학시절에는 학교와 아르바이트 장소를 오가며 생활비와 학비 마련을 위해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책상 위에 올려 둔 《성경》은 자식을 기다리며 길가에 나와 앉아 있는 어머니처럼 홀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가끔 생활의 불안을 느낄 때면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거나 아니면 아예 베개 삼아 베고 자기도 했다. 어머니가 주신 《성경》은 읽어서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는 책이 아니라 어느새 나에게 신주 단지가 돼 가고 있었던 것이다.

새로 얻은 아르바이트 자리인 사우나에서는 밤 여덟시에서 새벽 네시까지 일했다. 아르바이트가 끝난 네시 이후에는 부글부글 거품이 이는 욕탕 속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그렇게 사우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나는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했고 가고 싶은 사진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료들은 대개 돈이 생기면 멋진 카메라를 사서 새 카메라를 자랑하곤 했다. 하지만 나는 단 한대의 카메라와 렌즈만 가지고 돈이 생기는 족족 필름을 샀다. 그리고 틈만 나면 사진을 찍고 또 찍었다. 당시 내가 다니던 사진학교는 약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있는 학교였다. 훌륭한 사진가를 많이 배출했

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포토 저널리스트들을 키워 낸 명문 학교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학교에서 나는 멋진 이정표를 세웠다.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학생이자 그것도 1학년인 내가 세계적인 카메라 메이커로 이름난 니콘사에 사진을 초대받은 것이다. 나는 물론이고 선생님들도 기뻐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십년씩 공을 쌓아도 전시를 할까말까한 곳에서 1학년 학생이 전시한다며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라며 즐거워하던 선생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전시회를 계기로 일본의 잡지에서 일도 들어왔다. 차츰차츰 교료도 늘고 생활도 안정됐다. 그리고 나는 학교와 촬영 현장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살았던 동경 생활 7년을 마감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삿짐을 쌀 때 어머니께서 주셨던 순모 담요는 색도 바래고 털도 다 빠져 마치 누더기처럼 보였다. 그리고 책상 위 한 귀퉁이에 놓인 《성경》이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7년간의 동경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기쁨 때보다 슬프고 외롭고 춥고 배고플 때 어머니께서 주신 《성경》을 꺼내 들고 몇 번이고 읽으려 했다. 아마 어머니도 그렇게 하라고 내게 그 《성경》을 주신 것이리라. 그러나 나는 7년 동안 단 한줄도 읽지 않았다. 아니, 차마 읽을 수가 없었다. 만약 《성경》을 펴서 읽기라도 하면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에 영영 울어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행복한 시간에는 어머니의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는 책상 위에 있던 《성경》이 어찌 그리도 크게 보이던지.

읽히지 않는 책을 어찌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를 강단 있는 사람으로 만든 책. 그리고 외로운 사진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탱해 준 책은 읽지 않은 어머니의 《성경》 이외는 다시 없을 것이다.

오늘도 읽지 않은 그 성경책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동서양 최고의 철학자들이 만화와 만났다!!

만화로 읽는 철학 1. 2. 3. 4(조준상 글·그림, 각권 192면, 6,000원)

1. 나 자신을 알라(그리스·로마 철학)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느끼고 있는 철학을 청소년과 일반 독자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우리 필자의 글과 그림으로 엮어 기획한 철학만화 시리즈 첫권으로 그리스·로마 철학자의 삶과 사상을 다룬다.

2. 믿음으로 구원(중세 철학)

철학만화 시리즈 둘째 권으로 중세 그리스도교 철학을 한눈에 조명할 수 있는 최적의 만화입문서이며, 중세 철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생애와 사상을 재미있게 다룬다.

3. 음양의 조화(중국 철학)

철학만화 시리즈 셋째 권으로 중국 철학을 다룬 최적의 만화입문서로서, 유가 철학으로부터 도가 철학, 불교 철학을 아우르는 각 사상가들의 생애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4. 깨달음의 길(인도 철학)

철학만화 시리즈 넷째 권으로 인도 철학을 한눈에 조명해 볼 수 있는 만화 입문서로서 우파 니샤드 철학으로부터 자아나고, 자유사상가, 브라만의 육파 철학, 불교 철학을 아우르는 인도 사상가들의 생애가 펼쳐진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http://www.seokwangsa.co.kr>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 전리안 phil6161